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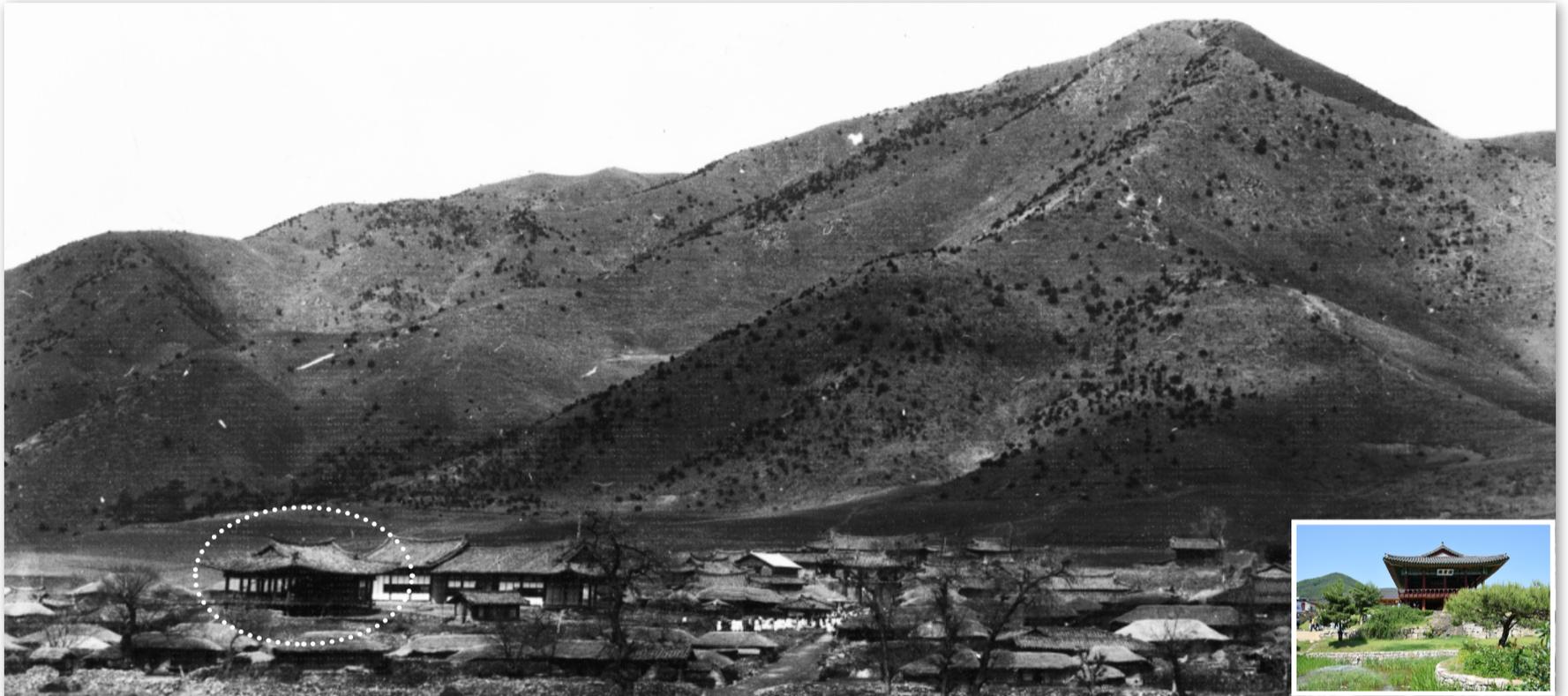
격월간 제150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7월 31일(토)

## 대중회 창립 50주년...심문의 영광을 미래로

1971년 5월 30일 발족...송조돈목 정신 되살려 사회 공헌 다짐



107년 전(1914년) 일제강점기 때 찍은 찬경루 사진. 흰 점선 안이 찬경루의 옛 모습이다. 인간에게 100년은 긴 시간일지 모르나 영속하는 역사와 단체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흑백 사진은 청송심문에게 앞으로의 100년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듯하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오늘날의 찬경루 모습.

대중회 창립 50년을 자축하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봅니다.  
 핏줄로 모인 단체가 미래를 사는 길,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청송심문은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에도 존중받을 것입니다.  
 돌아해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시 50년을 향하여  
 미래를 위한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 50년 동안 일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중회 임직원 일동

#### <청송심씨종보>도 이번호로 150호...1996년 2월 20일 창간 후 25년만



<청송심씨종보>가 이번호로 150호를 맞았습니다. 1996년 2월 20일 창간한 이후 25년만입니다. 그전에 대중회가 <青松報>를 발간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고, 찬섭 일가분이 <青松의 뿌리>라는 소식지를 3년 9개월 간(45호) 발행하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발간한 것이 바로 이 <청송심씨종보>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의 발달로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송심씨종보>를 창간할 때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청송심씨종보>는 앞으로도 심문이 살아 가는 오늘의 모습을 전달하는 매체이자, 일가분들과 대중회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일가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송심씨종보 창간호1면

2021년 7월 31일, <청송심씨종보> 발행인 및 편집위원 일동.

# 沈영감 심민섭

시작하기를 50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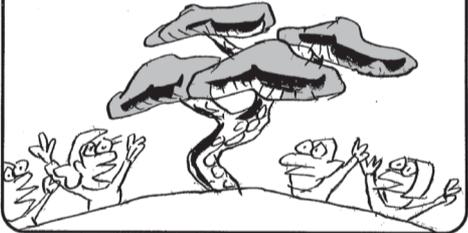
맞이하기를 150호재입니다



이어하기를 1500년 갑니다



늘푸르기를 청송의 뜻입니다



“

**대중회 50년·중보 150호를  
일가 여러분과 자축합니다**

”

## 이사회와 정기총회, 코로나 사태로 9월 말까지 일단 보류

대중회는 7월 7일 서울 시내 덕수궁 옆 한식당 달개비에서 2021년도 제1차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실적과 예산결산, 20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청송 위토 처분안, 이사회와 정기총회 개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와 정기총회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일단 9월 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그 밖의 의안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한 것처럼 의결했다.



7월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개최한 2021년도 제1차 회장단 회의.

부 의 안 건	의 결 내 용
1.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안	1. 원안 의결(단위: 백만원) 수입 4,662 (안성 도기산성 토지처분이익금 4,239 포함), 지출 492, 순익 4,170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 원안 의결 <2021년도 주요사업> ▲ 대중회(중보) 통합 홈페이지 개선 모바일 중보를 반응형 및 리메뉴얼하여 각 분야별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2022년도 청송신문 달력 발간 ▲ 「청송심씨대중회 50년 약사」 발간
3.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3. 원안 의결 증재(宗財)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후손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4. 청송 위토처분 안	4. 총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명의 신탁 위토를 일부 매각하기로 함
5.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안	5.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월말까지 회의개최를 잠정 보류하되, 향후 코로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개최 ▲ 이사회는 100명, 정기총회는 3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될 경우 대면회의 개최 예정

## 전문성 갖춘 일가들로 종중재산관리위원회 발족



대중회 주관으로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모습(5월 27일)

7월 7일 열린 제1차 회장단 회의는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 개최한 제3차 회장단 회의에서 대중회 소유재산(명의 신탁재산 포함)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증재(宗財)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상균(부산경총회장, ㈜SP시스템스 회장) 심상조(대유토건 회장), 심상경(주식회사 협동 회장), 심재문(부사공중회장, 원혜빌딩 건축운영), 심재월(전 상록회관 본부장), 심재덕(안동선비박물관 관장, 대덕산업회장), 심재희(우리은행 일산위시티지점장), 심충식(㈜선광 대표이사), 심보균(전 행정안전부 차관), 심규화(울산내금융회회장, 종회빌딩 건축 운영), 심규선(중보편집장, 전 동아일보 대기자), 심달훈(전 중부지방 국제청장), 심언태(대중회 총무이사, 간사) <20면에 증재관리위원회 규정 요약>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대중회장 인사

# 30만 일가의 구심체로 다시 신발끈을 매겠습니다

## 청장년 참여유도, 미래인재 육성, 청수회 내실화에 주력



국내외 30만 일가 여러분!

올해는 1971년 5월 30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대중회를 창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회를 이끌어 오신 선대 임직원과 일

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가분과 더불어 자축하고자 합니다.

대중회 창립 이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1909년 구한말에 종약소를 만들었고, 1955년 6월 5일 돈목회를 결성해 찬경회로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545년 인조 원년 을사보를 창간해 조선조 말까지 8회 발행하고, 1957년 정유보를 발간하는 등 대동세보(족보)의 유구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종약소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고관대작을 역임한 선조님들은 위선사(爲先事)와 송조돈목을 앞장서 실천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청송심문은 시대마다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은 선조들이 종회의 명맥을 이어 오다가 비로소 1971년 5월 30일 대중회를 창립했고, 당시 서울지방고등검찰청 심성택 검사께서 초대 회장을 맡아 오늘날 대중회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제2대 회장은 심명구 선광 회장이 맡아 대중회 운영비 등을 자부담하며 무려 28여 년간 최장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 제3대 심두섭 회장, 제4대 심의락 회장, 제5대 심갑보 회장 등 선대 회장들께서 5처 묘소 정화사업, 현 대중회 사무실 매입 이전, 4세조 정안공(휘 德符)과 악은공(휘 元符) 형제분을

비롯한 선조 재실과 재각 건립, 청송의 찬경회관 건립, 청송심씨종보 발행, 대중회 홈페이지 개설과 인터넷 족보 구축, 장학제도 운영 등 송조돈목을 통한 종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지난 2018년 4월 17일 제6대 회장을 맡고 나서 청·장년층 세대들이 종사에 관심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회는 2019년 후손 5000여 명이 참석한 한마음대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소중중 지파총회를 초월하여 국내외 30만 후손이 일가로서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차세대인 청수회의 지역별 내실화, 미래 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청심 장학회의 제도화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종보 발행 150회를 기념하여 '10000원 회비 납부 10000명 구독자' 확보를 통해 '1등 대중회' 만들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일가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21. 7. 31.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 대중회 50년, 청송심문의 며느리가 드리는 편지

## 바른 집안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고 아이들도 배우길 소망



아버님, 어머님,

남편과 연애하던 대학 시절, 남편이 청송(靑松) 심씨라는 것을 알고 반가워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

장 좋아한 문인 화가가 현재 심사정(女齋 沈師正)이었거든요. 전문 화원(畫員)을 능가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도 놀라웠고, 그림마다 배어 있는 고상한 기품도 좋았습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빈틈없이 꼼꼼하게 처리하시면서도 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격을 보여주시는 아버님, 어머님은 현재의 그림을 닮았습니다.

아이를 키워 보니 내리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듯 받았는데, 그 사랑에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무한한 인내가 따르는 것이더군요. 결혼한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여전히 살림에 서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바로 어머님, 아버님께 응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한차례의 나무람도 없이 새아기의 어리광을 받아 주고 계신가요.

문득 제 손끝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향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문 기사를 가위로 오릴 때, 가족들 주려고 과일과 채소를 믹서기에 갈 때, 깨끗이 설거지한 그릇들을 기다란 면포 위에 차

곡차곡 쌓아 올려서 말릴 때. 향기는 일부러 바르려 하지 않아도 서서히 몸에 배나 봅니다.

가풍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 스며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듯합니다.

제가 느끼는 시댁의 가풍은 말은 바 일은 경중에 관계 없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처리하되, 주변분들에게는 따뜻한 배려를, 가족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바른 집안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고, 아이에게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끝으로 대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친회의 발전을 바라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대중회분의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7월, 장마가 시작된 날에  
며느리 김지산 드림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대중회 50년을 되돌아보니

# 대중회 50년은 無에서 有를 창조해온 시간이었다

아무런 권한이나 금전적 이득도 없는데 그저 핏줄만으로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대중회 50년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한 시간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YES'였다. 핏줄이 모인 것은 핏줄을 넘어 이 사회에 공헌하려는 선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지로 뜻있는 지도부가 앞에서

끌고, 사심 없는 일가들이 뒤에서 밀며 대중회의 모습을 갖추었다. 아래 정리한 대중회 50년은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들을 가능하게 만든 일가들의 단결력과 승조돈목의 정신일 것이다. 대중회는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이어가며 미래 50년을 준비할 것이다.



2019년 10월 5일 청송에서 열린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서 심대평 회장이 제1회 청심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1대 회장 심성택

1. 초대 심성택 회장(1971.5.30~1979.11.8)

- 1971.5.30. 대중회창립 전국총회
- 1971.7.20. 청송보(창간호) 발행
- 1972.12.1. 대동세보(무술보) 간행
- 1976.9.12. 함열 2세조 재각(영모재) 신축 준공식



2대 회장 심명구

2. 제2대 심명구 회장(1980.9.28.~2008.5.28)

- 1983.5.8. 청송 4세조 악은공 재실(경의재) 준공식
- 1987. 9.13 4세조 정안공 묘소 정화사업 준공
- 1990.12.31 시조 문림랑공 묘소 정화사업 준공
- 1993.10.17. 철원 2세조 봉익대부공 제단 설립
- 1994.3.31. 대중회 찬경회관 입주
- 1996.2.20. 청송심씨종보(창간호) 발행
- 2002. 5.29 청송심씨사적비 건립
- 2002.9.10. 대동세보(경진보) 발행 및 대중회 홈페이지 구축 총 수록인수 231,965명
- 2005.12.7. 심문의 가장(家章) 재제작
- 2005.3.25.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재실 준공식
- 2008.7.15. 청송심씨 찬경회관 준공



3대 회장 심두섭

3. 제3대 심두섭 회장(2009.4.23.~2011.4.29)

- 2009. 9.30. 대동세보(경진보)에 누락된 과보를 인터넷족보에 등재 완료
- 2009.10.10. 5세조 청원군(휘 淙) 산소 묘갈비 건립 및 사초
- 2010.4.6. 1대 대중회장 성택 회장 공적비, 2대 명구 회장 송덕비 제막식
- 2011.3.31. 청송심씨대중회 40년약사 발간



4대 회장 심의락

4. 제4대 심의락 회장(2011.4.29.~2014.4.8)

- 2011. 9.30. 소헌공원 준공식
- 2012. 7.17. 장학회 창립 및 규약 제정
- 2013.4.18. 최초 대중회 장학제도 시행
- 2014.4.10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안성) 대중회 명의 이전



5대 회장 심갑보

5. 제5대 심갑보 회장(2014.4.8.~2017.4.16)

- 2014. 9.12.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6.12.15.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대중회 승소로 종결
- 2017.11.3. 4세조 정안공(휘 德符) 재실 준공식



6대 회장 심대평

6. 제6대 심대평 회장(2018.4.17~현재)

- 2019.7.29 (재) 청심장학회 등록 (서울시교육청)
- 2019.10.4~5. 한마음대회 개최
- 2019.1.25. 청송심씨종보 개설 및 모바일 접속 시스템 구축
- 2020.3.1. 한마음대회 백서 제작배부(1200부)
- 2020.6.25. 청송심씨 13상신 승조사업TF 구성·운영
- 2020.11.1. 최초 청송沈門달력 제작배부 벽걸이 6000부, 탁상용 1000부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일가들의 축하메시지

## 대중회 50년, 종보 150호를 재도약의 기회로

대중회 창립 50년과 종보 150호 발간을 맞아 노장청 일가들의 축하메시지를 원하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그만큼 대중회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받아냈다. 모두가 지금까지의 대중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자가 대중회는 일가들의 의견을 대중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마음대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20세손 **심능광**  
(청송, 대중회 부회장)

청송심씨대중회가 창립 반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대중회에서는 정화사업을 통해 시조묘소 등 5처소 2단소를 깨끗하게 수호관리하면서 종재관리에 애써 왔습니다. 또한 일가간 화합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에 개최한 한마음대회야말로 청송심문이 삼한갑족임을 여실히 보여준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5000여 일가분이 운집해서 질서정연하게 시조

할아버지의 음덕을 기리는 향사를 올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진 이 한마음대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중회가 심문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뿌리교육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심문이 세계 속의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진 양성에도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 젊은이와 여성 참여, 더욱 독려하길



24세손 **심민섭**  
(광주 · 금당산 총무)

청수회 창립 취지가 그렇듯 젊은이가 모여야 조직이 활기를 띠고, 여성의 활동이 많아야 발전도 있습니다. <청송심씨종보>의 올해 기사만 봐도 많은 여성 종원을 소개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중회 정관 제5조도 “회원은 청송심씨 성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남녀 종원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문의 여러 지파종회가 아직도 성인 남자만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며느리는 준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심문 딸들에게는 회원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각 문중의 종회마다 나름의 전통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여성 일가의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대중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젊은이의 참여와 함께 여성 일가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대중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 자랑스러운 여성 일가 기사 읽고 싶어



24세손 **심혜성**  
(익산 · 가수)

전북 익산에서 청도김씨 남편의 아내로, 세 아들(두 며느리)의 엄마로, 직업 가수 겸 아모레화장품 파트장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청송에서 열린 한마음대회에 다녀온 이후 온 가족이 우리 청송심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저의 자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평상시 청송심씨는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이고, 조선시대 과거를 통해 등용된 인재가 성씨 순위로도 최상위라고 했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청송심씨 여인은 품격이 높아

소헌(세종) 인순(명종) 단의왕후(경종) 등 왕후만 세 분이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송심씨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소헌왕후 외에 단의왕후와 인순왕후에 대한 기사, 근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청송심씨 여성의 사연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씨라는 것이 자랑과 자부심을 넘어 생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송심씨 만세! 만세! 만만세!

###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가에도 관심을



25세손 **심명식**  
(재중국 · 태권도)

현재 재중국 태권도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태권도를 매개로 추진하던 중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간, 기업들간의 교류사업이 모두 멈췄습니다. 하루빨리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외교는 정치적 외교가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이어서 그 나라 국민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우리는 지구촌 곳곳으로 태권도 사범들도 파견

했습니다. 그리고 사범들은 피땀을 흘려가며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고, 올림픽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데도 일조했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환영받는 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범들은 이제 민간외교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회 50년, 종보 150호를 맞아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심문의 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봅니다.

### SNS 적극 활용,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29세손 **심은영**  
(청주 · 보험설계사)

청주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청주에서 청송심씨 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SNS를 통해 청송심씨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몇 년의 시간이 흘러 30여 명의 모임으로 성장했고 2019년에 발족한 청수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을 가졌다’는 호

기심만으로 시작한 만남은 청송심씨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청송심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 흐름에 맞게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젊은 친구들이 청송심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대중회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일가들의 축하메시지

# 젊은이 참여 원한다면 SNS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종보에 대한 주문으로는 SNS와 모바일 등을 활용해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중회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종이종보와 함께 모바일 종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심장학회 출신들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어린이 · 청소년과 더 많이 소통해야

요즘 떠오르는 인물이 정계에 출사표를 던질 때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잇달아 개설하는 것을 보며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청송심씨 대중회도 소통의 매개체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었

던 어린이와 청소년 등 디지털 세대가 일컬어지는 2030 세대들이 SNS를 통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문의 역사와 영광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송심씨'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31세 손 심장현 (춘천 · 농업)

## 받은 혜택 돌려줄 수 있는 어른으로

청송심씨로서 여러 일가와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도와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에 마음도 든든합니다. 저는 청심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운을 타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많은 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처럼 서로 돌보아주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저희 청송심씨 일가분들이 나를 대견하고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27세 손 심주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 종보 받아들고 나의 뿌리 상기

한여름의 햇살이 뜨거운 요즘, 종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저희도 숲속 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종친회에서 주신 소중한 장학금이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커다란 격려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서로의 안부를 알기 어려워진 요즘, 지난 25년간 종친들의 소식을 앞장서 알려준 종보의 존재가 더욱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종보를 받아들고 나의 뿌리를

상기하고 심문 가족들의 소식에 새삼 든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종보가 우리 심문 구성원들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라는 쿼리 부인의 말처럼 종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26세 손 심서보 (서울대 경영학과)

## 저의 당찬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우선, 제3기 청심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받는 날, 청송심씨를 빛내고 계신 여러 이사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유능한 여러 학우를 직접 만나보면서, 청송심씨 가문에 대해 더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청송심씨는 자랑스러운 가문이라고 말씀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제가 청심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

실을 생전에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저 또한 남에게 뒤지지 않는 인재가 되어 청송심씨를 빛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 꿈은 대학교수이며, 현재는 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는 등 제 꿈을 향해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당찬 미래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세 손 심재봉 (서울대 박사과정)

## 더 많은 후배에게 장학금 혜택을

〈청송심씨종보〉의 제150호 발행을 앞두고 소감을 쓸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심장학생으로 선발돼 도움을 받은 만큼, 지금도 밤낮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꿈많은 후배들도 심씨종친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아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해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종친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송심씨종보〉 제15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세 손 심지훈 (1기 장학생)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일가 지방의원을 응원합니다

## 일가 지방의원들, “심문 금지 품고 의정 활동”

대중회 창립 50년 기념으로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가 의원들이 자신 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가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도 을 소개할 수 있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송심씨로서의 자부심 일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 지역소상공인 지원에 의정 활동 집중



심상후  
청송군의원

32년 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지부 사무국장 으로 일하다 지역상가 활성화와 청송군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청송군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 동을 돕기 위한 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소상공인 장려수 당지급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연 50만 원의 장려금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를 대비한 청 송군정의 대책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지켜보고 있습 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개인 안전수칙의

생활화,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인프라 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송은 관광도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 면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는 청송을 만 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 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행부는 희망일자 리사업을 확대하고 지방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 는 보조금 지급,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도민 인정받는 유능한 의회 만들려 분주



심상동  
경남도 의원

일가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에 힘입어 지난 2018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9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 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제11대 하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임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국정질문 9건과 9건의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경남도민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 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 상호 간의 소통과 의사일정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시도의회 의정활동, 지방자치 문제점과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을 적극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문의 후손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인정을 받는 큰 의회, 유능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전국 최초 시행



심영섭  
강원도 의원

2002년 제7대 강릉시의원을 시작으로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장을 거쳐 제9대까지 기초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9대 강원 도의회 의원으로서 제10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 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운영, 농림수산, 예산 결산특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오직 지역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왔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장으로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전국 최초 시행 등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에 대

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 동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기여했습니 다. 또,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 지원의 기능 확대 등 동해안권의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건의와 독려를 해왔습니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주 민과 접했으며, 그간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 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 먹는 물 문제 등 피부에 와닿는 현안 관심



심규순  
경기도 의원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과 후 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과 직결하는 안건을 많이 심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 성한 더불어민주당사회장을 맡으면서 따뜻한 손길 이 필요한 도내 소외계층과 복지단체를 방문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직원들의 애로 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 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으로는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도물 공급 을 위한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2018.12.21), 경기도 공사공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2019.2.19), 경기도 공 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6.24)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공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사 례 중심 교육 실시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 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고, 2019년 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중회 50년 · 종보 150호 특집 - 일가 지방의원을 응원합니다

# 내년 6월 1일 선거, 전원 당선을 기원합니다

일가 의원들은 모두 현장의 중요성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치의 기본일 것입니다. 전문분야도 다르고 최종 목표도 다르겠지만,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전원이 당선하길 기원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 일가 의원들을 응원합니다.

##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수상

경기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건의 사항을 현장을 방문해 파악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를 독려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6월 1일 제10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표창패를 수상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금껏 해온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더욱 경청하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가분계서도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래  
이천시 의원

## 인천시 최초의 미래비전 담은 조례 제정

종보를 통해 일가 여러분께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사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전국 각 지파총회 및 일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3선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연구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현실적이면서도 미래를 담은 인천시 최초의 조례제정 및 개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 다종다기한 민원을 듣고

해결하면서 지역민과 삶의 애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전국 의정대상을 비롯해 언론사 의정대상을 현재까지 7회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청송심씨 문중의 명예와 위신에 걸맞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하시는 일 크게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

##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주력

아래는 거창군의회 8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심재수 운영위원장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을 때의 기사이다. "당시 밝힌 포부에 따라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월성의병 재조명, 구(舊) 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 고층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운영, 거창군의 스토리가 담긴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고가사다리차 운영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

텐츠 개발의 경우 군민들의 안전과 거창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 심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체육콘텐츠 개발이다. 가열되고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열기에 우리 지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단순히 시설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며, 스토리를 더해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재수  
거창군 의원

## 나라 이끌 큰 인물 나오도록 지원을

우리 문중을 잘 이끌어 주시고 문중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심대평 회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산청군의회 4선 의원이 되었으며, 제8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일가친척의 절실함과 그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 1만 명의 유권자 중에 심씨 일가는 2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타 문중은 400~500명에 달해 이들과의 경쟁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신중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종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문중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중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잃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신 회장님과 집행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중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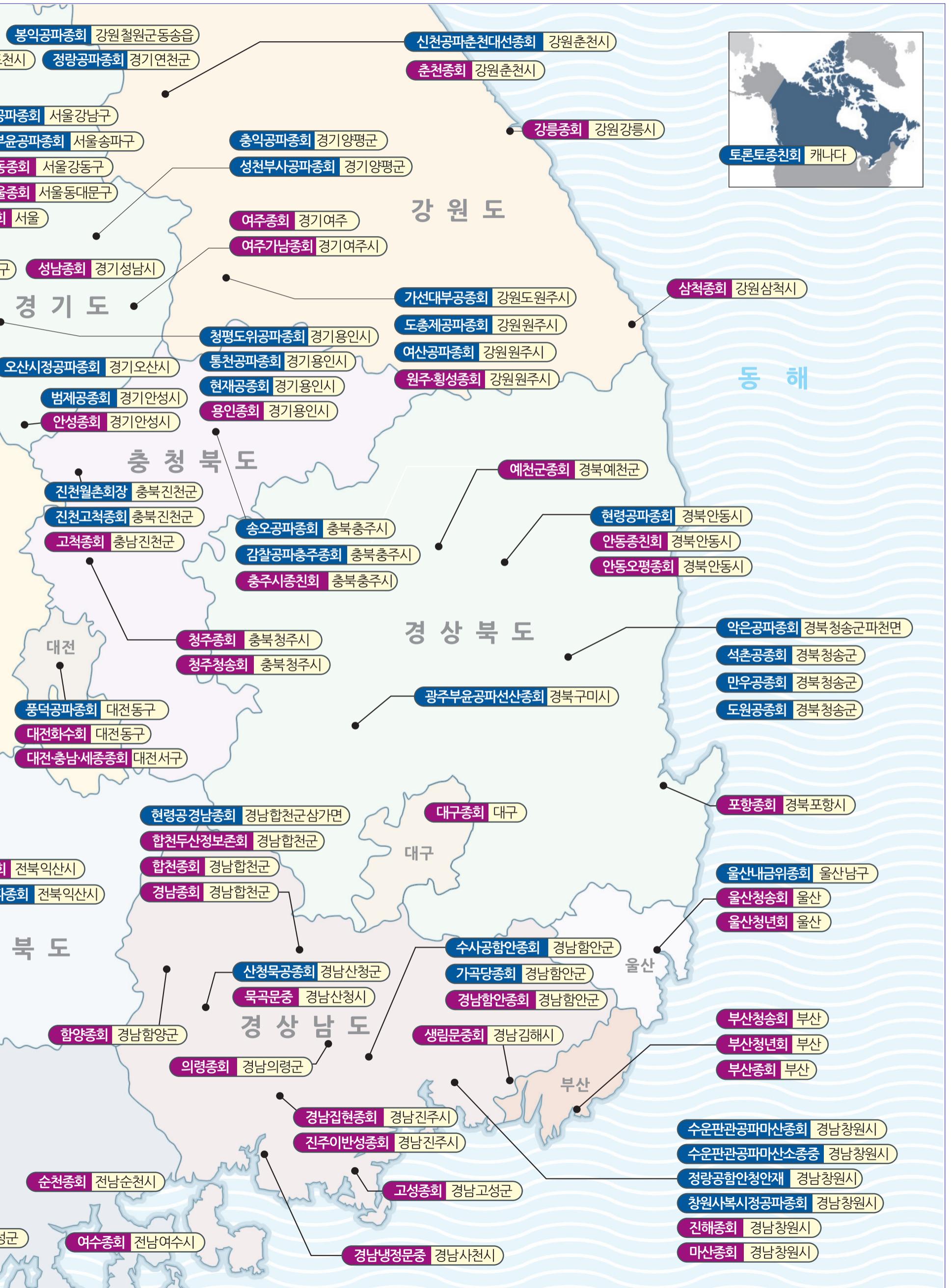


심재화  
산청군 의원

# 대종회 50년, 지파종회 150개로 전국을 덮다

지파종회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봤습니다.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출잡아 150개나 됩니다.  
 청송심문의 지파종회가 이리도 많다는 것은 후손들이  
 그만큼 송조돈목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酒香百里 花香千里 人香萬里. 술향기는 백리를 가고,  
 꽃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후손의 향기는 몇 리를 갈까요.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 -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 “39년간 조국의 바다 수호, 그 길은 영광이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다. 조국을 위해, 후손을 위해. 군문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긴 하지만 군인은 또 계급으로 살아간다. 대장(大將). ‘별 넷’이나 ‘포 스타’로 불리는 꿈의 계급이다. 해

군 대장은 해군참모총장 한 명뿐, 옛날로 치면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이순신 제독의 자리이다. 그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했던 심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대회사 장면(2019.5.10.)

바다에서 막아내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기동함대 등 해군력 증진에 진력하면서 해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해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해군 문화에 뿌리내려 상하좌우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와 복무환경을 최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39년간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근무하며 바다와의 인연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정예화된 필승해군’의 꿈을 키웠고, 선후배들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교류하는 통행로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바다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이 동남아 지역의 바다, 중동 지역의 바다, 태평양을 아우르는 바다 등 전 세계 대양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다를 지키는 리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품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전문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리더를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해군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물을 좋아했습니다. 저수지, 강, 바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해군사관생도인 고등학교 선배가 모교에 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의 명언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저는 바다와 해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간의 생도 과정을 마치면서 해군장교가 갖추어야 할 지략, 용기, 체력 등을 키웠습니다.”

**-어떤 군인이 되고 싶었나요.**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흔들리던 조선을 지켜내셨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위협은 반드시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 충무공은 이 신념으로 조선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저는 충무공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해군장교로서 서해, 남해, 동해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현역 생활 중 가장 보람 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저는 해군장교로 39년여를 복무하면서 파란만장한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람찬 일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2018년 국제관함식 행사를 제주도 일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이 관함식으로 국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고 국위선양 및 강한 해군력을 현시했습니다. 관함식에는 미국 등 12개국의 전투함정 19척이 참가했고, 46개국 외국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국제회의와 문화행사를 열었습니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걸어온 길**

6·25전쟁 막바지에 강원도 전투에서 수류탄을 맞아 중상을 입으신 아버지는 평생 시골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탓에, 저는 어려서 농사일을 많이 거들며 자랐습니다. 저는 1981년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010년 준장으로 진급해 전투전단장, 기동전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5년 소장으로 진급해 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중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 대장으로 진급해 제33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 방산수출 증진,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노력했나요.**

“만변(萬變)의 세월에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위국헌신의 각오로 ‘강하고 정예화된 필승해군’을 건설해 국가를 보위하고 번영을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필승해군은 미래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은

**-청송 심 씨에 대한 생각은. 혹시 일가들과의 인연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안효공과 24세 손으로 청송심씨 집성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청송(靑松)’이라는 의미를 좋아합니다. 제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훌륭한 청송의 선조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헌신하신 분, 조선의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신 분, 6·25전쟁 때 희생하신 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청송심씨 가문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천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6·25전쟁 막바지에 강원도 전투에서 수류탄을 맞고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해군장교로 복무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희생정신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25주기 추도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삶이 새삼스럽게 제 마음을 울립니다.”

〈심규선 증보편집장〉



해병대 2사단 작전대비태세 현장점검 장면(2019.9.19.)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20)

# 광복군과 임시정부에 청춘 바치고 안타깝게 남북

## 독립운동하며 만주를 누볐으나 명리는 멀리했던 심광식 장군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형보(炯輔)야, 너는 독립군(獨立軍)과 광복군(光復軍)이 어떻게 다른지 들은 적 있니?

독립군과 광복군은 모두 우리가 일제(日帝)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에 맞서 싸운 점은 같아. 그런데 독립군은 3·1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만주(滿洲)와 연해주(沿海洲) 등에서 무

장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때 조직한 군부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란. 특히 만주에서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하여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국민회군 등 여러 부대가 활동하면서 일본군을 많이 공격하였어.

이에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여러 독립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만주의 봉오동을 공격하였어. 그러자 이곳의 지휘관이었던 흥범도 장군은 후퇴하는 것처럼 속여 일본군을 지형이 험한 산속으로 끌어들이고 후매복해 있다가 일본군들을 전멸시키다시피 하였어. 또한 이때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 이밖에도 수많은 전투가 있었어.

이에 비해 광복군은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직한 항일군대를 말해, 독립군이 주로 독립운동단체가 설립한 것이라면 광복군은 임시정부가 설립한 공식군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설립하기는 독립군이 더 먼저였어. 나중에 각각 따로 활동하기보다는 통합해서 힘을 합치고자 하였어.

그런데 독립군이냐 광복군 모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별 구분 없이 그저 독립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다.

2020년 9월 경기도 안성시와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공동으로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우리 집안 심광식(沈光植·1911~?) 장군을 선정했어.

광식 장군은 이 광복군에서 크게 공을 세웠거든.



심광식 장군의 장인이자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광식 장군은 1911년 10월 15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강덕리에서 인수부윤공(仁壽府尹公) 정(澄) 할아버지의 20세손으로 태어나셨어. 17세가 되던 해에 일제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데에 분노하셔서 만주로 건너가 정의부

(正義府) 제1중대에 소속되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어. 그 뒤 더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려고 중국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를 졸업하고, 민족혁명당 중앙당 군사부원이 되셨어.

이어서 1937년 3월에는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 출판물 간행요원으로 활동하셨어. 이곳은 사상(思想)이 투철하고 판단력이 정확해야 근무할 수 있는 곳이었어.

이때 뒷날 광복군 총사령관이자 해방 후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백산(白山) 지청천(池青天, 1888~1957) 장군의 사위가 되셨어.



심광식 장군을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포스터

당시 지청천 장군은 광복군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광식 장군님을 유심히 보아왔던 거야. 그리하여 애국심 넘치고 지혜로웠던 우리 광식 장군님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

지청천 장군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으나, 곧 탈출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서셨어. 그리하여 장군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 윤용자 여사, 딸 지복영, 아들 지달수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우리 광식 장군까지 사위로 맞이하여 전 가족이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어.

그 뒤, 광식 장군은 1942년 10월 충칭에서 임시정부의정원 충청도위원으로 뽑히셨고, 1943년 3월부터는 임시정부 국무회의 비서처의 서무(庶務)를 맡아 큰 살림살이를 꾸려오셨어. 그러다가 1944년 6월에는 지금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내무부 경위

대에서 간부(幹部)로 근무하셨고, 1945년 6월에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의 서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오가며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셨어. 당시



심광식 장군

서무과장은 모든 광복군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등을 해결해주는 중책이었어.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중책을 맡길 정도로 광식 장군은 신임을 깊이 받고 있었어. 우리 광식 장군이 아주 공명정대하고 또한 지혜로웠던 거야.

8.15 광복이 되자, 1945년 11월 충칭의 대한국민임시정부 청사를 떠나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어. 이때 미군정은 독립운동을 전개한 각 단체들이 서로 정권을 잡으려 할지 모른다 하여 상해임시정부 요인들을 푸대접하며 경계하였어. 그러나 광식 장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청천 장군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 지청천 장군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위원으로 임각할 때 특별보좌관이 되었지.

당시 이범석 총리가 우리 광식 장군의 인품과 공적을 알고, 국방부의 과장과 경기도 어느 군의 군수(郡守)로 추천하였으나 건강을 핑계 대고 모두 사양했다고 해.

그 뒤, 광식 장군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인민군들에게 희생되었다고도 하고(심정섭 고 희기념 문집 《통곡의 한반도》 20쪽), 광복군으로 활약할 때 얻은 병으로 1960년 3월 21일에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도 있어(위키 백과). 만약 6.25 전쟁 때에 희생되었다면 39세의 가까운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안성3·1운동기념관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6·25 때에 납북되었는데, 북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숙청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단다. 그래서 유족들이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고 사망신고를 한 1960년 3월 21일을 기일로 정했어. 그러니 우리 남쪽에는 광식 장군의 묘가 없지. 만약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모셨을 테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우리 광식 장군에게 대통령표창을,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어.

그래, 우리 집안에는 이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많았어.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를 길이 기억해야 할 거야.

종회탐방 - 진주이반성정수종회를 찾아서

# “심문 며느리는 반드시 선조 묘소를 참배해야 한다”

## 1. 진주 이반성 정수종회는?

안효공과 5대손인 10세조 승지공(휘 의·嶷)은 승정원의 승지를 역임하시다가 스스로 물러나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터를 잡았다. 이후 11세조 대승(大升), 12세조 영(泳), 13세조 가선대부공(휘 서헌·瑞憲)까지 4대가 그곳에서 살았다.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해 왜구의 침입과 약탈이 잦아지자 가선대부공의 부인인 과평 윤씨 할머님이 아들 수(壽)를 데리고 남쪽 따뜻한 곳을 찾아 내려왔다. 지금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이다. 그로부터 약 420여 년 동안 장안리와 평촌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고, 이 집안을 장안리의 옛 지명을 따서 정수문중이라고 했다.

수(壽) 할아버지의 장남인 15세조 통정대부공(휘 낙생·洛生)은 호조참의를 지내며 아들 7형제를 두었다. 맏아들 16세조 참판공(휘 일호·逸湖)는 무과에 급제해 병조참판을 지내며 명문가문으로 입지를 굳혔다. 공은 가선대부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호를 받았다. 그 후손들은 오늘날 오봉산(523m)을 중심으로 70여 가구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인근 하동과 거창, 함천, 창원 등지로 흩어졌다.

## 2. ‘법인’으로 재산관리

종중재산은 2005년 감모재 이축을 기점으로 법인자산으로 관리한다. 법인대표는 법인의 대표 자격만 갖고, 종회 운영은 종유사가 총괄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법인대표는 초대 재주, 2대 광남 일가로 이어졌고, 철보(哲輔) 종유사가 사실상 종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인근 자연부락인 검정과 감동, 죽산, 삼거 지역에는 각각 부유사(副有司)를 두어 종유사를 돕도록 하고 있다.

종회 내에는 화수회, 며느리계, 청송회도 있다. 화수회는 매년 음력 삼월 삼짇날 조상숭배 의식과 일가간 친목도모의 날을 운영한다. 청송심씨 며느리계(회장 도말순)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다. 박정숙(대보, 갑보 변호사의 모친) 초대 회장은 “집안의 며느리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선조의 발자취를 잘 알아야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며느리계원 전원은 청송 시조(휘 흥부·洪孚), 익산 2세조(휘 연·淵), 안성 3세조(휘 용·龍) 연천 4세조(휘 덕부·德符), 수원 5세조(휘 온·溫)와 여주 소헌왕후 묘소를 참배했다. 심문에 시집은 이숙희 검정마을 이장(부산댁)은 여성 종유사처럼 열성이다. 그는 “서로를 위하는 양반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순임 여사도 남편 철보 종유사와 바늘과 실처럼 온갖 곳곳을 도맡아 보고 있다.

## 3. 감모재(感慕齋) 중건과 선조 묘역조성

감모재는 수(壽) 할아버지의 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재실이다. 당초 검정마을 안쪽 산중턱에 있었으나 건물이 낡고 이용이 불편해 이축하게 됐다. 2005년 초봄 재주(90·현 철보 종유사의 당숙) 종유사가 문중의 의견을 모아 오봉산 남쪽의 지금 장소로 이전했다.

재실 중건 때 서울의 재복 일가가 500만 원, 대구의 재옥 일가가 3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전국의 직계 후손들이 십시일반으로 5억여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를 이용해 문중 부지 300여 평에 대문채인 청소문과 2칸짜리 거실, 관리사와 대청마루가 딸린 감모재를 중건했다. 대문채에는 청소문(淸素門)이라고 쓴 현판을 걸었는데 후손들은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이다. 이 이름은 작고하신 정 의 일가분이 지었다.



감모재 중건기

2012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 선조묘역이 국가개발계획에 수용됨에 따라 철보 종유사가 문중의 의견을 모아서 10세조 승지공(휘 의·嶷)부터 13세조 증가선대부공(휘 서헌瑞憲)까지 내외분 묘소를 진주 이반성 장안리 각골에 모두 이장하였다. 주섭(柱燮), 재주(在在) 일가분이 맡아 추진했다.



각골 묘원을 참배한 일가들. 왼쪽에서 네 번째 여성이 이숙희 검정마을 이장이다.

## 4. 종회 운영과 포부

매년 음력 10월 10일 시제를 모신다. 종회는 음력 10월 말일에 여는데, 전국 각지의 종원들이 모여 종사보고와 문중전담 세수결산을 한다. 자산은 논 20마지기, 산 10정 등이고, 연간 400~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대부분은 제수비용과 종회 경비, 재산세 등으로 쓴다.

이곳 출신으로는 갑보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광보 경남교총회장(김해 울하초등학교장), 재명 전 삼성의료원 전무, 재섭 (쥬우리 대표이사(전 방위사업청 조달본부 이사관), 재수 거창군 의원 등이 있다.

종유사인 철보 쌀전업농진주시연합회장은 “일가들이 대부분 이반성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모두가 자기 일처럼 종가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도 조상 섬기는 일, 후손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재=심준섭 편집위원(경운대 교수)〉



앞줄 왼쪽부터 심준섭 편집위원(경운대 교수), 현령공파경남총회 심진식 총무, 대구종회 심중섭, 이반성문중 심철보 회장, 대종회 심상익 문화이사,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 겸 악은공종회 회장(진주), 심재섭 (쥬우리 대표, 이반성문중 심광남 대표, 심재호, 심재주, 하동 심재식, 뒷줄 왼쪽부터 대구종회 심춘환, 심정행, 이반성문중 심재인, 창원사북시정공종회 심흥보 총무이사, 함천종회 심재상 회장, 이반성문중 심상봉, 대구종회 심정미, 이반성문중 심재진.

일가기업탐방 - 서울 송파구 제일영재학원

#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심재안 설립자 겸 이사장, 신뢰로 학원 키우고 희생으로 봉사 활동



교육사업으로 성장해 요즘은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는 심재안 제일영재학원 이사장(대중회 골프회장).

### 심재안 이사장은 누구인가

심재안 이사장은 인재양성에 평생을 바쳐 장영실과학문화대상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경남 충무와 마산에서 교직에 몸담았다가 상경해 1980년대 서울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10년 강사의 경험을 살려 양재동에서 입시학원을 개원했다. 그후 경기도 성남에서 ‘제일연세학원’을 경영하다 1992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초중고 입시전문학원인 ‘제일영재학원’을 설립해 교직원 300여 명, 수강생 5000여 명에 이르는 대형학원으로 키웠다. 심 이사장이 맡고 있는 직함만도 송파구장학재단 이사장 등 10여 개가 넘는다. 대개가 봉사직이다. 청심회 회장과 송파문화원장도 지냈고, 현재 대중회 골프회장을 맡고 있는 등 대중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심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심재안 이사장은 ‘학원 내에서 예절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대하고 학생을 학업에 매진토록 해서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런 경영 철학 때문에 심 이사장은 현재 송파구 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면서도 학부모는 물론 학생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바른 교육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원경영자로서,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땀을 아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업가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돈과 지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롤모델(Role Model)로 삼고 싶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로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공의 종착역은 나의 성공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봉사와 환원이 아닐까 합니다.”

입시학원으로 성공한 비결을 묻자 심 이사장은 “강사 시절부터 배려와 나눔의 철학을 세우고, 공부에 뜻을 둔 학생에게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동료들을 배려해가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심 이사장은 이 초심을 학원 설립 이후 자체 ‘장학재단’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청송심씨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할인해주고, 등록할 때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에 사는 청송심씨 학생들이 심 이사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많이 등록한 이유이기도 하다.

### 심 이사장이 들려주는 코로나 시대 학습법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0%의 교사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교육분야에서도 양극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심 이사장에게 물어봤다.

첫째, 원격수업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지도로 스마트기기를 절제 있게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 저학년일수록 통제력을 잃기 쉬우니 부모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되, 학습 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학습격차를 더 벌어진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장점을 조합한 혼합수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권했다.

첫째, 현존감(現存感)을 느끼도록 한다. 현존감이란 원격교육 상황에서 비록 모니터를 통해 교사와 소통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부모와 교사는 학생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교육적 지지를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시간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얼마큼 시간을 보냈는지를 써 보게 한다. 그럴 때 자신이 한 일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면 좋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등으로 말이다. 그러면 본인이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 학생들은 흔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후 학생 본인에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물어본다면 그 정답도 본인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시간을 정한 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스마트기기를 본인에게 유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컴퓨터, 웹캠, 헤드셋 등의 기본 장비를 마련하고 시간표에 따라 교과서와 노트 등 필기도구를 책상 앞에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등교는 하지 않지만 등교해서 수업받는 것과 똑같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면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 적극적,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변화이다.

〈취재=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가운데가 심재안 이사장, 왼쪽은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오른쪽은 심오택 (재)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전 국무총리비서실장).

충남 당진의 심훈기념관을 찾아서

# “심훈 선생 민족정기 느끼러 꼭 한번 들러봐야 할 곳”

글 쓰는 순서

1. 심천보 이사장 인터뷰(5월 31일 자)
2. 심훈기념관을 찾아서(이번 호)
3. 심훈 선생에 대한 좌담회(9월 31일자 예정)



심훈 선생

난생 처음 충남 당진의 심훈기념관을 찾았을 때 “가슴이 먹먹했다”고 지난 5월호 머리기사에 썼다(청송 심씨종보 제149호, 1쪽). 그 당시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핏줄을 찾아 ‘마음의 고향’을 찾아왔다는 느낌이었다. 청심회(회장 심충식) 주관으로 2017년 11월 청송의 시조묘를 참배했을 때와도 달랐다. 청송이 주왕산을 낀 본원적인 모습이라면, 당진은 바다가 옆에 있어 안온했고 잘 정돈된 기념관은 의연했다.

청송 심씨는 조선시대에 삼정승과 육조판서를 많이 배출한 명문가란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하지만 조선시대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온 국민의 칭

송을 받으며,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인물은 별로 없다. 소헌왕후의 아버지인 심은 할아버지나 조선의 양반세력이 사색당파로 갈릴 때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심의겸 할아버지가 일반인에게 그나마 알려졌을 뿐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심훈이야말로 심문이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다. 심훈의 <상록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장편소설 1위에 올라있다. 문화방송이 1983년 10월 22, 23일 여의도 스튜디오 특설전시장에서 개최한 <83 한국소설 1천년전>에 참가한 시민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염서로 응답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주부, 노년층 등 각계각층 2만 2305명 중 압도적 다수인 43.7%가 심훈의 <상록수>를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답했다(중복응답). 2위는 이효석의 <매밀꽃 필 무렵>(38·2%), 3위는 이광수의 <무정>(33·5%)이었다. (중앙일보, 1983년 11월 16일, <https://news.joins.com/article/1721117#none>)

상록수에는 농촌계몽에 나선 남자 주인공 박동혁이 나온다. 박동혁의 모델이



심훈기념관 옆의 작은 공원에 있는 전시물. ‘상록수’의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박동혁은 심천보 이사장의 아버지인 심재영 선생이 모델이다.

심훈의 장조카 심재영이다. 여주인공 채영신은 안산의 실존 인물인 최용신을 모델로 했다. 그녀는 몸을 사리지 않고 농촌계몽 운동을 하다가 상록수에 나오듯 “과로와 영양실조로 창자가 꼬여 썩어가는 병”으로 26세에 죽었다. 채영신은 소설 속에서 사랑하는 약혼남 박동혁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됐다. 100년 전에 민족의식과 강압통치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식민지 지식인과 헐벗고 배고파 죽어갔던 이 땅의 양민을 생각하니 처연한 슬픔이 밀려왔다.

지난 5월 4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심훈기념관을 찾았다. 첫 번째는 심천보 심훈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심대평 대종회장을 비롯해 심장식 선광회장, 심규선 종보편집장, 심상억 문화이사, 심창선 곡산공 총무와 함께였다.

심훈기념관의 주소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97이다. 이곳이 바로 상록수 소설에 나오는 부곡리이다. 심훈기념관은 2014년 9월 16일 개관했다. 당진시가 필경사(筆耕舍)와 그 옆의 심훈문학관을 운영해왔다. 장소가 비좁아서 그 옆 부지 2,842㎡를 따로 구입해 703.2㎡ 규모의 단층으로 신축한 것이 심훈기념관이다. 방문 당시에는 당진시로부터 1억 원의 예산을 받아 옥상의 방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심훈기념관 옆으로는 5,477㎡ 규모의 널찍한 상록수공원이 있으며 그 옆에 심훈이 거거하면서 상록수를 집필했던 필경사가 있다. 필경이란 붓으로 논과 밭을 일군다는 뜻이다.



심훈기념관은 충남 당진시 상록수길에 있다. 기념관은 그의 생애를 민족의식의 태동, 저항의 불꽃, 희망의 빛, 그날이 오면 등 4단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다.(기념관 홈페이지 캡처)

다. 필경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일자형이다. 동남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필경사 앞에서는 바다가 건너서 보인다. 뒤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졌다. 마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상록수문화관도 바로 이곳에 있다. 심훈기념관은 2014년 개관 이후 방문인원

수가 연 10만 명에 달한다. COVID-19가 확산하기 직전 해인 2019년에는 11만 명이나 방문했다. “대다수가 버스로 오는 단체 관광객이었다”고 고대영 학예연구사는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로는 방문객이 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층인 심훈기념관은 필경사에서 보면 지대가 낮아서인지 반지하처럼 보인다. 전시관은 293㎡(90평)으로 심훈가의 후손과 관계자들이 기증하거나 위탁한 유물로 꾸며져 있다. 전시는 심훈 선생의 일생을 기승전결로 나눠 ‘민족의식의 태동’, ‘저항의 불꽃’, ‘희망의 빛’, ‘그날이 오면이란’ 코너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전시관 중앙은 ‘상록수와 계몽 운동의 씨앗’을 상징하는 유품으로 구성했다. 또 ‘심훈의 시 쓰기 체험’과 ‘심훈의 시 낭송 체험’장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당진시 문화관광해설사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심훈 선생의 저항 정신과 계몽 정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이원복 해설사(62)가 심훈 선생의 공적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심훈기념관 주변에는 필경사 말고도 박동혁의 실제모델인 심재영의 고택, 여주인공 채영신이 박동혁을 찾아왔던 한진포구 등이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심훈기념관은 심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들러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훈이 상록수를 통해 어떻게 민족정기를 살리려고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봐야 한다.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다음 9월호에서는 21세기 종합예술가의 모델인 심훈 선생의 계몽사상과 근대화 기여에 대한 심문 일가의 지상 좌담회를 소개합니다.

## “인간성 교육? 여전히 효(孝)와 예(禮)가 답입니다”



**심의보**  
충청대 교수·교육학 박사

한국만큼 과거 교육의 전통으로 부터 단절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노부모를 폭행하고, 입양한 어린 자녀를 학대하며,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는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조리, 부패와 불륜들을 보노라면 이 모든 것이 인간됨을 위한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랫동안 쌓아온 위대한 전통들이 오늘의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한국인다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효다. 서양인의 시각에

서 한국인의 효는 신기하고 감탄스럽기까지 한 모양이다.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효 사상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천륜(天倫)이라고 하여 효를 백 가지 행실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효는 도덕규범의 기초이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하여 임금과 아버지 그리고 스승은 한 몸과 같다고 여겼던 우리다.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여 예의 기본으로 스승에 대한 불경(不敬)을 경계했다. 교편(教鞭)이라고 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도 용인했다. 영국의 오래된 잡화상에서는 지금도 잘 다듬어진 회초리를 팔고 있다. 체벌은 근절돼야 하지만 우리는 교편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선인들이 오랫동안 교육의 참된 목표로 삼았던 ‘감정의 조절’과 ‘도덕력의 신장’이 오늘의 교육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사제 간의 도’, ‘인륜’ 등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마치 신생국의 졸부처럼, 망한 집안의 후

손들처럼 온갖 좋다는 외국의 이론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모두 밖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생각하지 못한다.

중용(中庸)에 ‘하늘의 명(命) 그 자체가 곧 우리의 본성이요, 본성에 따름을 도(道)라 하고, 도를 따름한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 우리의 교육에는 인간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인간에 대한 질문과 탐구에 소홀했다.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지, 무엇이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며 또 비참하게 만드는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아 왔다.

일찍이 프랑스의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도 “진리는 진리로써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써 추구한다”고 하였다. 선과 동떨어져서 추구하는 지식은 깊이가 없고, 날개로 얻은 정보들로 만든 지식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삶에서 실천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개개의 표피적인 정보만을 줄 뿐 참된 인간적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지 않은 곳에서는 진리에 대한 관심도 지속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선에 대한 어떠한 추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실리주의와 도구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의 교육에서 위대한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는 인간교육은 어렵다.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 내 것과 네 것만을 무섭게 따지고, 자기감정 안의 것만을 중히 여긴다.

청송심씨대중회(회장 심대평)는 전국 대중회 최초로 2019년 7월 산하에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를 설립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했다. 청송심문의 후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젊은 영재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청심장학회의 이름으로 세계를 선도할 인재들이 속속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청심장학생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우리가 명문가로서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려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이다.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고쳐 미래를 발전시키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오늘의 교육이 목표나 방법이나 기초적 원리를 찾으려면 효와 예를 근본으로 했던 전통을 다시 돌아보고 그 전통으로부터 배우는 일이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일본 최대 월간지 <문예춘추>, 15대 심수관 크게 보도

일본 가고시마에서 도예가로 활동 중인 15대 심수관(61)이 최근 일본 최대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7월호의 특집화보에 등장했다. 문예춘추는 매월 60만 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잡지이다.

문예춘추는 ‘일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15대 심수관의 일상을 5장의 사진에 담아 잡지 맨 앞쪽에 보도했다. 여기서 15대 심수관은 “전통은 혁신의 축적”이라면서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전통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교토에서 수학했으며, 이탈리아 국립미술도예학교에서 디자인을 중요성을 체득했다고 한다. (경기도 이천에서 한국식 도자 제작 방식도 공부했다.) 그는 1999년 아버지인 14대 심수관으로부터 당주 자리를 물려받고 도예가의 감성과 장인의 기술을 융합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을 만들었다. 즉 도예가의 예술성만 강조하거나 장인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제작방식에서 탈피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아날로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번 기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아들(29)이 도자기 빚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15대 심수관의 표정이다. 장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후계자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이미 16대가 있으니 행복한 편이다. 그는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내놓고 나에게 반항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같은 길을 걷는 자의 숙명이다. 그때가 오면 아무 말 없이 사라질 것이다.”

(심규선 중보편집장)



15대 심수관이 16대 심수관이 될 아들의 작업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문예춘추> 스킷)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 도쿄올림픽에 심문 4명, 영광의 태극마크 달고 출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우리 일가가 4명 참가했다. 심재홍(여자핸드볼팀 코치) 11분 24초 보유자인 심종섭(30·한국전력), 여자핸드볼의 심해인(34·부산시설관리공단), 태권도 여자 49kg급 심재영(26·춘천시청) 씨는 선수로 참가했다.

심재홍(여자핸드볼팀 코치) 11분 24초 보유자인 심종섭(30·한국전력), 여자핸드볼의 심해인(34·부산시설관리공단), 태권도 여자 49kg급 심재영(26·춘천시청) 씨는 선수로 참가했다.



심재홍 (여자핸드볼팀 코치)



심종섭 (마라톤)



심해인(여자핸드볼)



심재영(여자 49kg급 태권도)

## (재)청심장학회 이사회 신임이사 3명 선임

(재)청심장학회는 7월 2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신임 이사는 심진섭 (㈜골든포우 대표이사), 심재안 제일영재학원 이사장, 임성호 경희대 교수이다.



심진섭  
(㈜골든포우 대표이사)



심재안  
제일영재학원 이사장



임성호  
경희대 교수



심상철 전 청송유사  
찬경회관 신임관장  
(7월 1일)



심진택 캐나다 오로니아 회장  
밴쿠버 한인회장  
(6월 26일)



청송 청년회장 심상압 취임  
(7월21일)



황지초등 심재성 교장  
태백시민대상 수상  
(7월 1일)



심우정 검사장  
서울동부지검장 영전  
(6월 4일)



심재덕 안동총회장  
한국국학진흥원 공로패  
(7월15일)



심재기  
전주예총회장  
전주 문화예술대상  
(5월 24일)



심육기  
헌법재판소  
연구관  
(7월 1일)



심흥선 카이스트교수  
7월 과학기술인상  
(7월 1일)



심태환 총경  
김해서부경찰서장 영전  
(7월 16일)

## 대중회 창립 50주년, 종보 150호 축하드립니다.

전국 지파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 2021년도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5월 21일 발표)

- 10070 심희정 10106 심민기
- 10343 심준섭 10820 심규황
- 10981 심경희 11235 심형태
- 11300 심지섭 11518 심지원
- 11682 심상아 11758 심지은
- 11943 심송옥 12049 심지현
- 12565 심한강 12799 심승미

## 6, 7월 인사

- <여수광양항만공사>(6월 1일자)  
◇ 승진 ▲ 2급 항만건설부 심인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6월1일자)  
◇ 승진 ▲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장 심호찬
- <대전광역시>(6월 16일자)  
◇ 승진(4급) △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
- <경북 철길군>(7월 1일자)  
◇ 전보 △ 의회사무국 심응섭

- <전북도청>(7월 5일자)  
◇ 탐장급 전보 ▲ 장애인정책팀장 심민규
- <전남도청> (2021.7.5.자)  
◇ 탐장급(5급) 전보 ▲ 국제농업박람회 심재명
- <전북 전주시청> (2021.7.1.자)  
◇ 국장급 전보 ▲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 <교육부> (2021.7.1.자)  
◇ 주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심규문
- <인천광역시청> (2021.7.12.자)  
◇ 4급 승진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장 심송옥 ▲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심재홍
- <충남 계룡시> (2021.7.1.자)  
◇ 전보 ▲ 업무면 맞춤형복지팀장 심상진
- <전북 김제시> (2021.7.5.자)  
◇ 승진 ▲ 환경과 심기섭
- <한국가스안전공사>(2021.7.12.자)  
◇ 1급 전보 ▲ 심이섭(감사실장)
- <전북 진안군청> (2021.7.13.자)  
◇ 7급(직급승진) : ▲ 여성가족과 심현정
- <기술보증기금> (2021.7.13.자)  
◇ 지점장 전보 ▲ 수원 심영한

- <대구광역시청> (2021.7.14.자)  
◇ 5급 승진 ▲ 투자유치과 심선희
- <울산광역시청> (2021.7.14.자)  
◇ 전보 ▲ 시민안전실 심수연 ▲ 의회사무처 심상미 ▲ 환경국 심은미
- <전북 군산시청> (2021.7.19.자)  
▷ 전보 ▲ 회현면 심다슬
- <세종특별자치시> 인사발령 (2021년 7월 30일자 등)  
◇ 6급 전보 ▲ 보건복지국 심은경  
◇ 6급 승진 ▲ 보건소 심연희
- <법무부>(2021.7.25.자)  
◇ 검사 신규임용 ▲ 광주지검 심우석
- <강원> ▲ 춘천원예농협 심명섭(52· 전농협이사) ▲ 원주원예농협심진섭(49· 현조합장) ▲ 묵호농협 심호섭(62· 현 망상동변영회장)
- <충북> ▲ 동충주농협 심복규(60· 현 조합장)  
▲ 송악농협 심천택(62· 현 조합장)  
▲ 노인농협 심상승(65· 회원) ▲ 월야농협 심선엽(45· 회원) ▲ 양산시 양산기장축협 심재강(58· 대의원)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 헌법재판소는 심문 4인방에게 맡겨주세요

서울의 중심,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초입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심문가 4인방이 근무 중이다.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재산권 관련 사건 중 조세분야를 담당하는 심욱기 연구관, 헌법재판소 대언론 창구에서 온·오프라인 홍보업무를 맡고 하는 심승훈 사무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은 판례집 등 간행물 발간을 담당

하는 심규석 사무관, 헌법재판소 청사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경 및 문화재관리를 맡고 있는 심태섭 주무관이 바로 심문가 4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를 빛내고 있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왼쪽부터 규석(간행물), 승훈(홍보), 욱기(조세), 태섭(청사관리) 일가.

### 심대평 회장 일행 충남 당진의 심훈기념관 방문(6월 30일)



왼쪽부터 심규선 증보편집장, 심장식 함흥공중회 회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천보 심훈기념관 이사장, 심재철 증보편집위원,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이 집은 <상록수>의 실제모델인 심재영 선생이 살던 집이고, 이 방은 심훈 선생이 당진에 내려왔을 때 소실을 집필하던 유서깊은 곳이다.

### 제45회 곡산공중중 정기총회 (5월 15일)



### 예술인과 전문인 등 2022년 심문달력 디자인위원회 구성(6월 9일)



왼쪽부터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은석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재금 김포한강신협본점 이사장,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심보경 한국화 화가, 심주걸 전 고위 공무원, 심재근 대중회 이사, 심인구 도예명인

### 안효공중회 정기총회 (6월 14일, 안효공 제실)



### 청수회 하계워크샵 (7월 3일, 청송 벽절정)



### 청수회 서울위원회 등산 (6월 19일, 북한산)



공지사항

종재관리위원회 규정 주요 내용

목적(제2조) 대종회 소유재산(명의신탁재산 포함)의 관리업무(재산의 취득, 개발, 매도, 소유자 명의변경, 수입창출 사업 등 재산관리상 일체의 부수 행위 포함)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총유물(總有物)인 종재(宗財)가 한치의 손실 없이 영구히 보전해 후손에 물려주도록 함으로써 종사발전의 백년 대계를 도모한다.

구성 및 선출(제3조)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상 13명 이하, 간사 1명 <선출> 금융, 세무, 물류, 건설(건축·토목 등), 재산관리업무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일가 중 대종회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무(제4조) 대종회 자산(고정 및 유동자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향 제시 및 운용방침과 관리계획 수립, 1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개발행위, 임대차, 매수매도 등 처분 행위 등을 사전에 심의 의결한다.

임기(제7조)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청송심씨종보 찬조 계좌 안내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정보공유, 사적지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격월로 발행합니다.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하는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보 추가신청 방법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전화번호와 SNS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종회>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기금 기부계좌 안내

(재) 청심장학회는 청송심문을 빛낼 인재육성을 위해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예·체능 특기생 유망주 등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발행하는 청송심씨종보, 청심장학회 홈페이지 등에 『장학생 선발공고』를 게재합니다.

청송심씨 후손 뿐만 아니라 외손 등 국내외 우수한 인재가 많이 신청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심장학회 운영에 뜻을 함께 해주실 일가분들의 장학기금 기부 동참도 환영합니다.

문의처 02) 2267-7857, 2267-9339

장학금 기부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내 족보(族譜) 모바일 검색” 안내

지금까지는 대종회(종보)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구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PC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매우 불편하였으나, 2021. 6. 25자로 반응형으로 리메뉴얼하여 인터넷 족보와 뿌리탐구 등 모든 정보를 분야별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함

《인터넷족보 모바일 열람(검색) 방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청송심씨대종회(또는 청송심씨종보)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열고, 시작 화면에서 우측 끝부분에 있는 메뉴검색 기호(三)를 클릭하여 “인터넷족보(대메뉴)” >> “인터넷족보검색(소메뉴)”에서 직접 열람(검색)할 수 있음

공 지 (풍덕공파 여산공종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의거 풍덕공파 여산공(휘 인보)종중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함으로 총회 안건은 서면결의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보 제150호 받으실 때까지 총회 문건을 못받으신 회원은 아래 연락처로 수신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03) 761-1984, 010-5365-9905,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77, 101동 304호(개운동, 덕산아파트)

2021년 7월 31일

청송심씨 풍덕공파 여산공(휘 인보) 종중회장 심정보

각종 찬조현황(2021. 5. 16 ~ 2021. 7. 15)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Table with 7 columns: Name, Title, Amount, Date. Includes members like 심무석, 심재문, 심익섭, 심종택, 심상민, 심준섭, 심규화.

임원회비

Table with 3 columns: Item, Amount, Name. Includes '21년도 부회장회비 30만원', '20년도이사회비 5만원', '21년도 이사회비 5만원'.

중보찬조

- 150만원 울산내금위중회(회장 규화), 50만원 상민(중국), 20만원 언촌(수원), 10만원 재금(김포), 영희(일산), 재섭(서울), 재철(당진), 언계(일산), 예천군중회, 준호(울산), 광언(서울), 강채(전남), 5만원 경보(울산), 광열(대구), 상범(원주), 동석(대전), 재근(경주), 규태(인천), 재화(용인), 진복(인천), 3만원 형석(안성), 규열(대전), 2만원 재홍(일산), 인구(이천), 민섭(광주), 지로중보찬조 4명 49,310원

장학찬조

- 100만원 준섭(대구), 5만원 성보(대전), 2만원 재희(일산), 1만원 준호(청송)